김영록 전남지사, 태풍 대비 특별 지시

내일부터 제주도 남해상 지나 3일 부산 통과

"루사·매미와 경로 유사해 사전조치에 만전"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1일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갖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없도록 사전조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 주재로 전남도청 정철실에서 가진 상황판단회의에는 시장과 군수를 비롯해 도 실국장들이 함께 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은 9월 2일 오전 제주도 남해상을 지나 3일 새벽 부산 지역을 통과할 예정이다.

이 태풍은 매우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한 채 북상 중으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 지사는 "지난 8호 태풍 '바비'가 예상보다 강도가 약했으나 도민들께서 잘 대처해줘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다"며 "이번 태풍 '마이삭'은 전국은 물론 전남에도 많은 피해를 줬던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의 경로와 유사해 각별한 대비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없도록 사전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태풍 '마이삭'의 이동경로가 2일 밤부터 3일 새벽사이 부산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으나 이동경로는 변할 수 있어 전남도는 여수 인근에 상륙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오늘과 내일 현장 시설물 결박과 고정 조치 등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산사태, 축대 붕괴 우려지역, 해안저지대 등 주민 대상 긴급재난문자 및 마을방송으로 사전 대피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지역 2차 피해 방지 ▲위험지역 안전선 설치 및 출입통제 ▲시설물 및 적치물 결속·결박 등 안전조치 이행 등을 사전 조치토록 특별 지시했다.

김정환 기자

광주에 '출입문 3개' 친환경 저상버스 등장

오늘부터 3개 노선 운행

안전·편의시설 갖춰져

광주에 출입문이 3개 달린 '친환경 3-door 저상시내버스'가 선보인다.

광주시는 31일 출입문 3개와 안전·편의시설을 갖춘 친환경 저상버스 6대를 도입해 9월 1일부터 시범운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저상버스는 진월07, 문흥18번 노선에 먼저 투입하고 수완03번은 효천1지구 도로정비가 완료되는 9월7일부터 운행한다.

버스 승객들의 승차는 운전석 쪽의 첫 번째 문을 이용하고 하차는 2번째와 3번째 문을 통한다. 휠체어와 유모차는 2번째 문을 통해 승하차 할 수 있다.

3-door 저상버스는 바닥이 낮고 길이가 기존 버스보다 1.1m 긴 12m에 달한다. 버스 의자는 항균 방염 처리되고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 출발을 방지하는 세이프티 도어와 비상탈출구 등이 구비돼 있다. 차내에서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USB단자 등 편의시설도 갖췄다.

손두영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3-door 저상버스가 기존 버스보다 길기 때문에 차내 혼잡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이용섭 광주시장 "코로나 확진자 거짓진술 일벌백계"

허위진술로 방역체계 위협

시민보호·엄정처벌위 구성

광주시가 광화문 집회에 다녀 온 사실을 숨기고 뒤늦게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일가족 등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확진자들의 거짓진술과 허위 동선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방역망이 무너진 데 대한 행정당국의 대응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직도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시내를 활보하고 있고, 일부 확진자들은 동선을 감춘 채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어 방역체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시장은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무증상자라 시민들의 일상 자체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0.1%의 방역 일탈자를 일벌백계해 99.9%의 시민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처벌대상 행위는 행정명령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허위진술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자가격리 중 이탈해 지역감염 확산의 위험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고의로 가짜뉴스를 퍼트려 사회 불안과 혼란을 주는 행위, 기타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 등이다.

광주시는 처벌 조치의 엄정성과 일관성,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 시민보호·엄정처벌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위원회에는 행정부시장과 경찰, 법률가, 감염병 관리지원단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명백한 경우 현행대로 해당 부서나 자치구에서 즉각 고발 조치한다.

광주시는 이날까지 확진자 4명, 교회 2곳, 방문판매업체 2곳, 유흥시설 20곳, 자가격리 위반자 18명 등 총 46건을 고발 조치했다.

기동취재본부

동구, '갱년기극복 프로그램' 비대면 온라인으로

광주 동구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갱년기극복 프로그램'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갱년기극복 프로그램은 40~64세 주민들의 갱년기 증상 완화와 건강한 노후 대비를 돕기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신체활동 △정신건강△심뇌혈관질환 예방 등의 분야로 구성돼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집합·대면 방식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축소·제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구, 공공자전거 이용자 대상 보험 가입

광주 서구가 2020년 9월 1일부터 1년간 관내 공공자전거 대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서구에는 현재 서구청을 포함한 18개 동 주민센터에 공공자전거 총 205대가 운영되고 있다.

공공자전거 보험은 광주 서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상해사망 3,000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상해후유장해 최대 3,000만원, 상해로 4일 이상 입원 시 4일째부터 180일 한도로 일당 2만원,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남구 "공공미술 프로젝트 평가위원 모십니다"

광주 남구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에게 일자리와 창작활동의 기회 제공 차원에서 4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참여 작가팀 선정을 위한 전문 평가위원을 공개모집한다.

28일 남구에 따르면 월산동 달뫼새뜰마을에서 펼쳐지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할 작가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공개 모집이 오는 9월 2일까지 진행된다.

남구는 공개모집을 통해 7~10명의 전문가를 선발할 예정이다.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

광주 북구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북구는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본촌동 양산사랑으로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다함께돌봄센터(양산사랑으로) 설치·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지역 주도의 아동 돌봄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사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북구는 2030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해당 아파트는 운영 장소를 10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BHC, 광산구에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 기증

8월 30일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4,900만원 상당의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 7개를 광산구에 기증했다.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은 차량 속도를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표시해 자발적인 감속운행을 유도하는 시설물.

광산구는 소위 '민식이법' 시행으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기증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식이법 취지에 공감한 BHC는 올해 1월부터 1년간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